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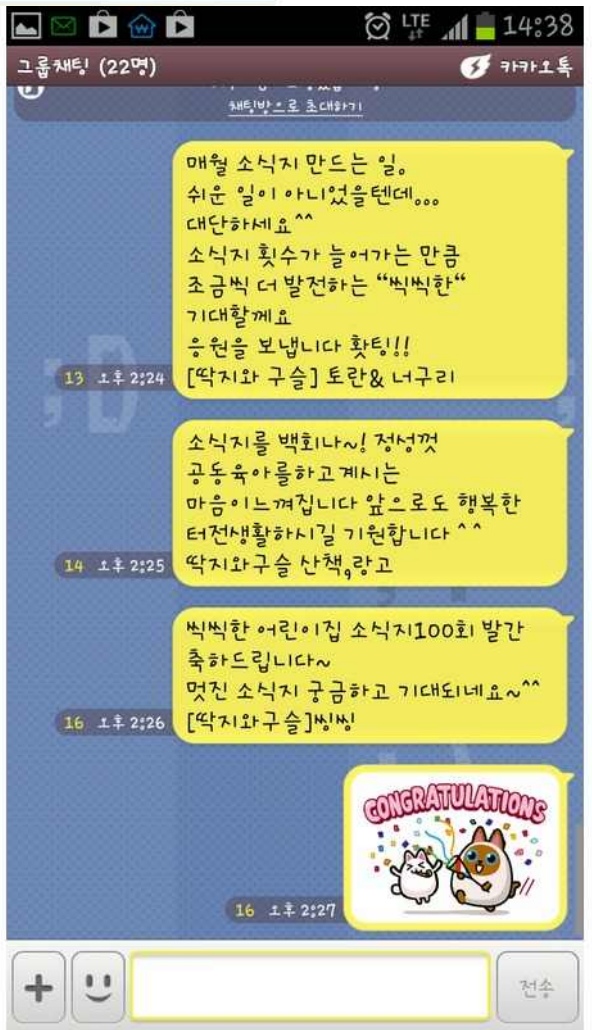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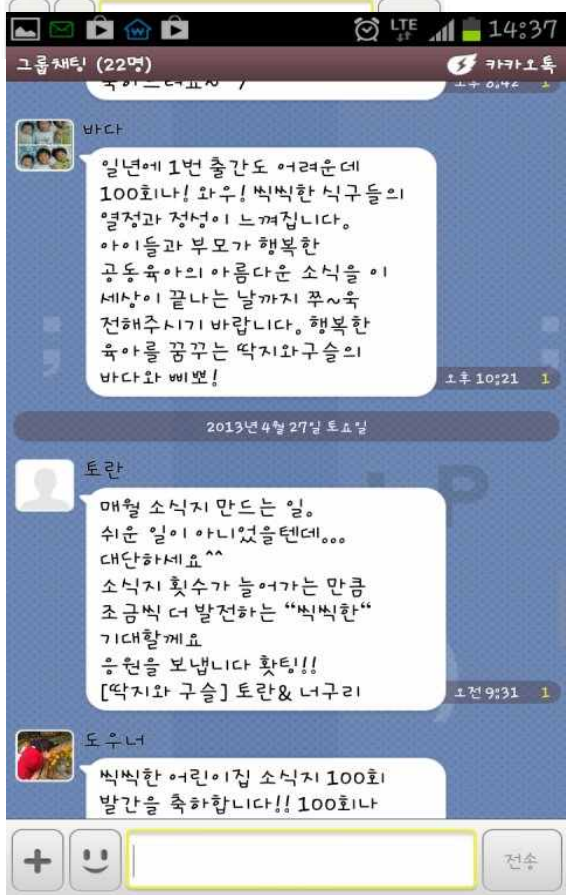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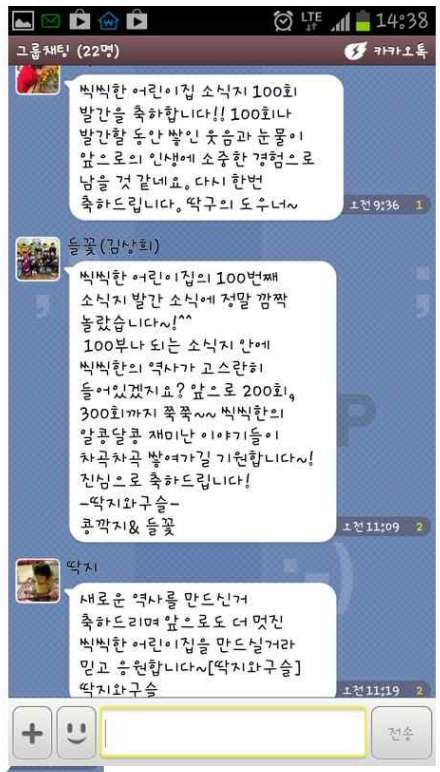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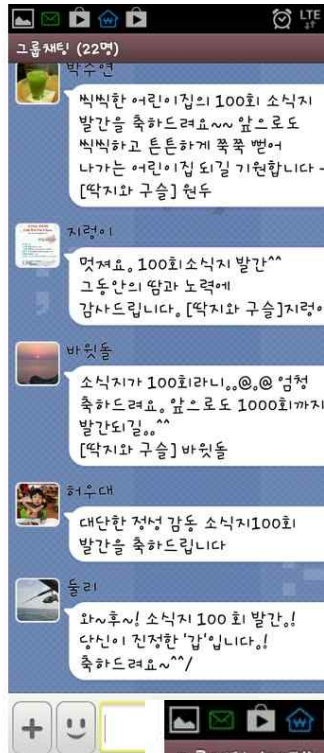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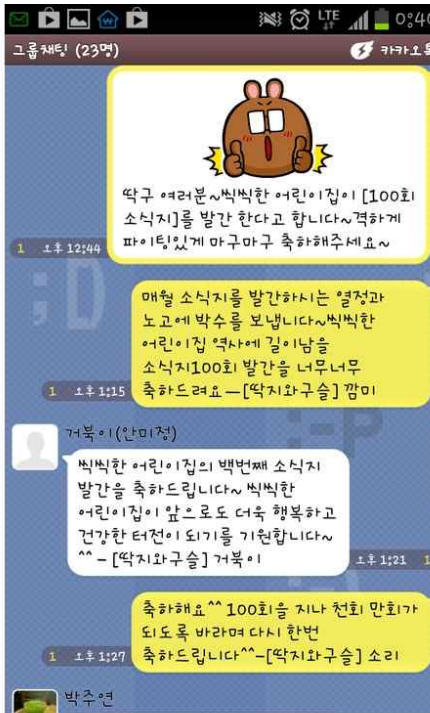
크는

우리 이야기

통권 100호
2013. 05



✿ 딱지와 구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

HOME | CONTACT US | SITE MAP

단체소개 | 자료실 | 간행물 | 참여마당 | 회원기관 커뮤니티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씩씩한어린이집/해바라기방과후 소식지 1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2005년부터 9년째 매달 소식지를 발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100호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그 동안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을 거쳐 가신 분들의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소식지가 반갑고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계속 대구 씩씩한/해바라기 공동체의 희로애락을 담아내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 번 1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

대구 강북공동육아 노마어린이집

2013. 05. 02 (Thursday) | 쪽지함 | 홈으로 | 로그인

네가 항상 웃을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생활하고,
가슴벅찬 마음으로 잠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바라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대구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995년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인 "대구 씩씩한 어린이집" 이
처음 시작은 힘들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일어나,
어느덧 "함께 크는 우리아이" 소식지가 100회를 맞이한다니,
너무나 기쁘고 축하를 드립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대구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구 강북지역 공동육아 노마어린이집 이사장 하영철(천송)

리본	89	2013-04-29
shameful007	60	2013-04-28
한복임	111	2013-04-19
리본	111	2013-04-18
한복임	47	2013-04-18
한복임	109	2013-04-17
ha0041	69	2013-04-16
리본	122	2013-04-15

소식지 출산 스토리

_강미영 명예조합원

안녕

하세요. 씩씩한 가족들~~.

졸업생 유지현 엄마, 강미영입니다.

올해 소식지 편집 담당이신 루다엄마로부터 며칠 전 뜻하지 않은 질문을 받았지요. “우리 터전 소식지를 쥔 먼저 시작하게 된 원흉(루다 엄마가 꼭 이렇게 표현했습다^^)을 알고 싶은데, 혹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유를 물으니, 이제 소식지 100호째를 맞이해야 그 역사를 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 조사 중이라네요.

흠... 어찌 알고 내게 물으시나 찢려서 놀랐고, 100호째란 그 말에 놀랐었죠.

조심스레 그 원흉이 저임을 밝히니, 루다엄마 왈 “소식지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 및 목적, 당시에 생각했던 전망 등에 대해 좀 이야기해 달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씩씩한 소식지의 출산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소식지의 현주소를 점검함과 동시에 더 발전된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는 것이 지금 소식지 팀의 문제의식이라 이해했습니다.

흔쾌히 그러마고 했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저도 씩씩한 홈페이지 들어가 예전 자료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현재의 씩씩한 소식지는 과연 어떠한가 궁금하여 최근 99호도 읽어보았습니다. 아... 세월이 진짜 많이 흘렀더군요.

소식지 표지부터가 예술이네요^^

저 또한 뜻하지 않은 감회에 젖어 지난 몇 년을 돌아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2005년 전체 들살이



우선 소식지의 산실인 홍보소위는 2005년 1월부터 생겼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린이집 조직이 재정, 운영, 시설, 교육 등의 영역만 있었지 홍보소위는 없었습니다. 2년차 조합원에 들어선 제가 홍보이사로서 그 첫출발을 했지요. 지금도 그러리라 짐작하지만 조합 생활 2년차에 가장 많은 의욕과 열정이 넘칠 때였던 것 같아요. 조합생활 일년의 경험과 문제의식, 조합발전에 대한 나름의 기대와 포부 등이 제 개인적으로 컸다고 기억이 됩니다.(물론 지금 확인할 수 없겠죠?^^)

그 해, 이사진들이 가졌던 문제의식 중 하나가 조합원들 간의 소통, 마을과의 소통... 뭐 그런거였습니다. 그 역할을 홍보소위가 맡아야 한다 생각했고, 그런 고민이 소식지와 홈페이지활성화, 소위모임의 정례화, 대기자 설명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아졌고 추진이 되었지요. 아래가 그해 2월 첫 홍보소위 모임시 소식지와 관련해 논의 결정된 이야기입니다.

2005년 2월 18일 첫 홍보소위 모임후기 중 발췌...

- 매달 첫째주 금요일 소식지가 발간됩니다. 그달의 교육계획과 조합의 각종 공지사항, 월 재정결산, 조합원과 교사들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실을 예정입니다. 소식지를 통해 조합의 일을 공유함은 물론이고 각 가정과 교사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원고청탁 혹은 취재요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정의 원고료가 나갈지도 모릅니다. ^^

그리고 소식지가 복간 1호라는 명칭으로 2005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그 이전에도 간간히 비정기적인 소식지가 나오던 때가 있었더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이어지지 않았던가 봅니다. 꼼꼼히 기억나진 않지만 처음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선 당시만 해도 교사들의 교육평가 및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조합원들과 꼼꼼하게 공유되는 과정이 부족했었거든요. 이사회나 방모임시 간략한 정리문서나 혹은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렇잖아도 일많은 교사회는 엄청 부담되는 일거리가 새로 생긴 격이었지요. 물론 각 이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년과 월별 소위별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제출하라 하니 여기저기서 불멘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다들 힘들겠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은 같았고, 결국 첫 호가 나오게 되었지요. 2/3가 교육평가와 계획, 각 이사별 사업계획인 소식지가 무에 그리 재밌었겠습니까만은 첫 호를 받아들고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거듭되는 편집회의를 통해 마음을 여는 시(글), 게릴라 데이트, 씩씩한 만평, 신규 가정과 교사 소개, 각종 교육이나 모임 후기, 재미난 공지 등등 필요한 코너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였죠.

조합을 이루는 아이, 교사, 부모 개개인이 서로의 생각과 생활을 좀 더 공유하면 좋겠다는 것, 소통이 더 잘 되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해의 폭도 넓어져 더 유연하면서도 탄탄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는 것!!! 그것이 처음 소식지가 출발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2013년 5월에는 100호 소식지가 탄생하게 되었네요. 축하축하~~~

대충이지만 제가 99호를 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편집진의 전문성이 일취월장한 것이 가장 눈에 띄구요(ㅎㅎ 초반에 몇몇 아가가 나눠 편집하면, 워드작업한 원고를 싣고 제가 영대복사집으로 찾아가 제본하고 했던 기억이...).....
교사회의 평가 및 계획도 더욱 세심해져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씩씩한의 홈페이지나 소식지가 예전 그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이 시끌벅적하고 컬러풀하게 느껴져요. 구성원도, 기술수준도, 결속정도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니 당연하겠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역 내에서 소식지를 나눠볼 수 있다면 공동육아를 이해하는 것, 또 씩씩한의 내용을 알리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생협, 소아과/산부인과 병원, 지역 및 학교 도서관 등등에 비치할 수 있다면 말이죠(현실성은 안 따져봐서 모르겠네요).

조금 아쉬운 것은 아마와 교사 개인의 생각과 생활을 공유하는 내용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른 것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기 때문일 수도, 아님 글을 쓰는 부담 때문일 수도... 뭐 현재에 대한 평가와 계획은 지금의 편집위에서 치열하게 하고 계실테니 도움 안되는 제 오지랴는 접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루다 엄마가 당시 소식지 출산 후 어떤 아이로 성장시킬 것인지 생각이 있었는지, 그랬다면 무엇인지 물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런 전망까지는 생각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건강하게 낳는데 급급했달까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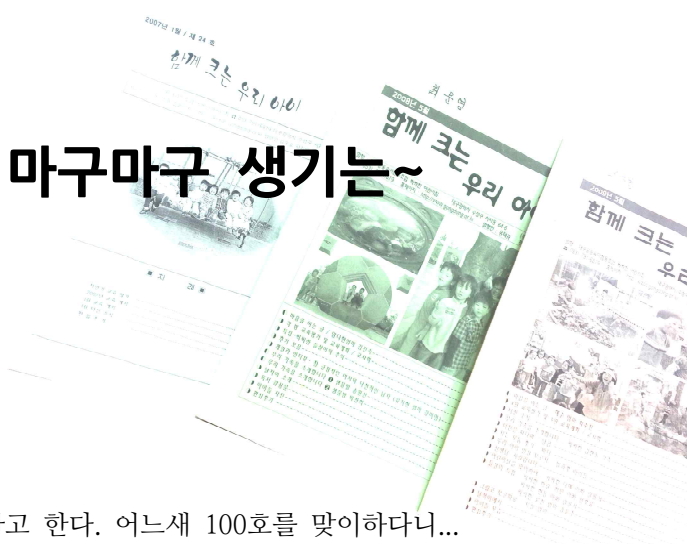
그 뒤편은 100호를 맡는 편집팀으로 돌아가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소식지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탄생을 준비할 시기가 왔으며 또 그것을 담당할 주체가 생겼단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씩씩한 소식지 100호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안녕히 계세요~~



피곤한 몸에 엔돌핀이 마구마구 생기는~

_이화정 해바라기 최문영, 씩씩한 최영윤 엄마



우리의 멋지고 멋지신 홍보이사님께서 전화가 왔다

이번 소식지는 100호를 맞이하는 의미있는 소식지라고 한다. 어느새 100호를 맞이하다니...

그런데, 100호를 맞이하는 소식지에 맞게 소식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좀 더 많이 실어보고 싶다고 글을 써달란다. 아휴~~ 그래도 선배조합원인데 싫다할 수도 없고... “네, 쓰도록 노력하지요” 라고 했는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나로선 마음의 짐을 가지고 며칠을 생활한 것 같다.

소식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써야할지 고민을 하며,

첫 번째, 먼저 4월 소식지를 들추어 본다.

아. 이런... 지난달 뭐가 그리 바빴을까? 소식지를 제대로 읽은 단락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 홍보소위들이 알면 무척 싫어할텐데... 이런 나의 고백을 조합원들이 다 보는 소식지에 적어? 말어? 하다가 적는다. 이런 고백은 웬지 나에게는 채찍질이 되는 듯 하여...

“홍보소위 여러분!! 죄송해요. 담부터는 두배, 세배, 네배는 더 노력할게요^^”

두 번째, 우리집 책장 제일 위쪽 한줄에 꽂혀 있는 소식지들에 눈을 돌려본다.

저 소식지들은 언제부터 꽂혀져 있었더라? 가장 오래된 소식지는 2007년 1월 소식지다. 벌써 6년도 넘었다. 우리집 책장에는 2007년 1월부터 최근 2013년 4월까지의 소식지가 모두 책장에 꽂혀져 있는데 한번 꽃히기 시작한 이 소식지들을 한번이라도 더 꺼내서 읽어봤던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안타깝게도 없다. 한 2-3년전 대청소를 하면서 그동안 모아뒀던 소식지를 버리려고 했던 적이 있다. 어떤 물건도 소중한데 여겨 잘 못 버리는 문영아빠가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를 해 버리지는 못했다. 지금이라도 버려야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세 번째, 7년째 이 터전에서 생활하면서 5월을 7번째로 맞이한다. 문영이가 4세이던 2007년부터 작년 2012년까지 6권의 5월달 소식지를 꺼내 들춰본다. 과연 이 6권의 소식지안에는 우리 터전의 어떤 역사가 있을까?

2007년 5월 - 신규조합원이던 나와 문영아빠를 비롯해 세하네, 해준네, 동현네, 해군네 등의 독서감상문이 실려있다. 그 당시 내가 적었던 독서감상문을 다시 읽어보니 신규로서 의문점이 적혀있다. 반말 문화에 대한 의구심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새삼 그 시절의 나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난다. 그리고, 해준네가구 소개 글이 있는데, 한페이지를 장식한 해준네 가족사진에서는 셋째 승우가 없다. 이때 해준네는 승우가 태어날 것을 예상은 했을까?^^

2008년 5월 - 조합들살이를 4월에 다녀온 모양이다. 샘물방 문영아빠의 조합원 들살이 후기가 실려 있다. 번개맨과 빨간 눈 연극과 단풍방 엄마들의 텔미댄스가 있었던 그 들살이다. 이 공연들은 완전 멋진 공연들이었고, 아이들과 아파들에게 인기최고였음이 새롭게 떠오른다.

2009년 5월 -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터전 선생님들께 전하고자 하는 아파들의 짧은 편지글들을 모아놓은 <선생님! 사랑합니다>코너가 있다. 당시 홍보소위였던 문영엄마(^)가 정리를 해놓았는데 총 4장이나 되는 긴 내용들이다. 이와 더불어 해바라기에서 짧게 일했지만 긴 여운을 주신 달콤 선생님의 <터전을 떠나시는 달콤 선생님>코너가 있다. 달콤쌤은 어떻게 지내실까? 보고싶고 순간 궁금해진다.

2010년 5월 - 영윤이가 4세가 되면서 터전을 다니기 시작한 해이다. 4세때도 잘 먹고 잘 자고 낮잠 투정도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영윤이가 이때도 아파는 안녕아저씨, 엄마는 사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기록이 교육평가에 있다. 4세 영윤이가 이렇게 똑똑했구나~~ 싶다^^. 그리고, 해바라기의 엄마같은 선생님 포도에 대한 인터뷰 코너<참 크고 평온한 모성애>가 있다. 포도선생님의 살아오신 과거(?)와 해바라기에 대한 생각 등 많은 내용들이 실려있다. 하지만, 글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역시 포도쌤의 모성애다. 건강하게 오래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2011년 5월 - 4월에 아이들의 자는모듬이 있었고, 이 자는모듬시간에 인형극소모임의 공연이 있었다. 이 인형극소모임의 제안부터 구성, 연습, 그리고 자는모듬에서 공연까지의 기록 <모두가 멋지게 즐긴 또 한 번의 소중한 시간>이라는 코너를 문영아빠가 적었다. 이 인형극 소모임은 하랑하민엄마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아이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는데 꾸준한 모임으로 가져가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인형극에 관심있는 아파들이 있다면 이 소식지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관심있는 아파가 있기를^^. 그리고, 신입교사 체리쌤의 소개 코너가 있다. 체리쌤 동안의 비결(?)을 비롯한 체리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벌써 3년차이신 체리쌤도 아이들과 좋은 시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래요^^

2012년 5월 -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한 터전살이 후기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돌들에 새겨진 웃음>코너가 있다. 현민엄마가 작성한 이 터전살이 후기는 우리 가족이 속해있던 '웃는 돌들'조다. 1박 2일동안 서로를 알아가고 더 많이 이해하며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이 외에 더 많은 내용들이 6권에 들어가 있다. 해도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6권 소식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나도 쉬고 싶다^^ 빨리 글을 마무리해야겠다.

6년간의 5월달 소식지를 둘러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구의 모습이 여기저기 보인다. 최근들어 소식지를 제대로 읽지 않았던 나의 고백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했다.

'소식지가 꼭 필요할까?' '책꽂이 꽂혀 있는 소식지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식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소식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하람아빠에게 넘길까?' 등등... 그래서, 6권의 소식지를 펼쳐보니 새삼스럽게 나를 즐겁게 만들었다. 사실 하람아빠에게 소식지에 관련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한을 이틀이나 넘긴 27일 오후 9시. 출장을 다녀온 피곤한 몸에 엔돌핀이 마구마구 생기는 느낌을 받는다. 문영아빠가 버리지 말라고 했던 결단(?)을 이제사 이해하게 되었고, 소식지가 가지는 역할과 의미,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다. 이 글을 요청한 하람아빠에게 살짝 고마운 맘도 든다. 앞으로는 피곤하더라도 소식지를 열심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피곤할때는 이미 지나간 소식지를 다시 꺼내 읽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마무리를 지어본다.

터전 아빠

_이호준 해바라기 이현민, 씩씩한 이서영 아빠



장면 하나.

처음 참여한 통합 방모임에서 선배 조합원들의 금과옥조와 같은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며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굳이 신규 아마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라신다. 빼고 빼고 또 빼봤지만 더는 버티지 못하고 조심스레 한 말씀 올렸다. “아이들 얼굴과 이름 익히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저 먹는다고 생각진 마시고요, 커다란 나무 하나 그려 거기에 애들 이름 적힌 사진을 과실처럼 주렁주렁 붙여 터전 마루 벽에 붙여 놓으면 어떨까요? 환경미화도 되고 애들도 자기 사진 붙어 있으면 좋아할 것도 같고, 신규 아마들도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빨리 익힐 수 있고 말 걸 때도 이름 모르면 열린 커닝도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은데...” 선배님들 반응이 어떨지, ‘터전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힘들 게 꺼낸 이야기를 막 마무리하려는 그때, 한 선배 조합원의 말씀이 비수가 돼 가슴 속으로 날아든다. “진짜 거저먹을라 하네.”

헐!

장면 둘.

처음 참여한 터전 대청소. 소심한 마음에 선뜻 아빠들이 점령하고 있는 마당으로 나가지 못하고 걸레 들고 이 방 저 방 구석구석을 닦는 등 나름 열심히 청소를 한다. 엄마들의 만류로 걸레질을 그만두고 엉거주춤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거들고 있는데 한 선배 조합원의 크고 거시기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에 @@사러 가야 되는데 ㅇㅇ아빠 갔다 와요.” 되니 안 되니 하는 소리가 오가더니 잠시 후. (듣기 다소 거시기한 명령투로) 현민 아빠 할 일 없죠. 갔다 와요!”

허걱! 선배님, 왜 그러세요. 명령 안 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ㅠㅠ

신입이다. 신입은 신입다워야 한다.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잘 적응해야 한다. 선배 조합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한다. 내 생각과 논리가 있다 해도 한 템포 쉬어야 한다. 너무 나대선 안 되고, 겸손도 떨 줄 알아야 한다. 터전 생활을 시작하는 나의 신입관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은 일들이 잇따른다. ‘어?’ ‘어!’ ‘어...’,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이 어느새 신입이 끝났다. 그리고 알았다. ‘여기’는 신입이 신입일 필요가 없는, 아니 ‘뭐? 신입?’ 하는 자세를 가져야 더 잘, 그리고 더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곳, 그냥 어울리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알 것 같다. 눈이 좀 뜨이고 마음이 조금 열린다. 그리고 함께 할 일들도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데 또 뭔가 이상하다. 이번엔 이상한 기류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건 또 뭐야’. 그리고 함께 하던 일이 홀라당 뒤집힌다. 완전 어이 상실이다.

터전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엄마가 이사를 맡는다. 그리고 각종 회의와 인증을 받기 위해 뛰어다닌다. 둘째가 어리다. 많이 아프기도 했다. 양가 할머니가 번갈아 맡아 키워주신다. 일주일 사이 이 집, 저 집, 그리고 요 집 등 세 집을 옮겨다닌다. 엄마 품에 안겨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 엄마와 함께할 시간은 주중 이틀 밤, 주말뿐이다. 안쓰럽다. 그런데 하필 이때 엄마가 이사다. 밤, 주말... πππ

그래도 잘 논다. 다행이다. 너무 예쁘다. 감사하다. 엄마 없이도 잘 놀아줘 더 예쁘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를 찾는다. 엄마를 애타게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한다. 울고불고 넘어간다. 엄마만 찾는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지만 도저히 달랠 수가 없다. 속상하다. 화가 치민다. 엄마가 되지 못해서다. 아빠로서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상과 현실, 현실과 현실이 충돌한다. 아빠도 넘어간다.

그렇다고 엄마에게 전화하기도 망설여진다. 엄마에게 방해가 될까 봐, 속 좁고 독촉이나 하는 남편이 될까 봐서다. 애써 태연한 척, 대범한 척, 그러나 많은 의미를 담은 소심한 문자 한 통 보낸다. ‘아직 많이 남았나’.

엄마도 문자에 담긴 여러 의미를 모를 리 없다. 엄마도 화난다. 자신의 처지, 남편에 대한 못마땅함, 딸에 대한 미안함 등등... 모든 게 다 화난다.

결국 남편과 아내가 충돌한다. 대신 이사 하란다. 싸우기 싫은데, 이해하는데, 그런데도 둘은 싸우고 있다. 불쌍하다. 둘째도 불쌍하고, 첫째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고, 아빠도 불쌍하다. 애들 행복하라고, 엄마, 아빠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보냈는데 왜 이리됐는지. 다 불쌍하다.

이쯤 되니 ‘막 간다’. 이것 저것 다 불만이다. 아이들을 위하고, 아이들 세상이라면서 방모임이니 이사회이니, 이런저런 회의니, 열린 마루니, 임시총회니, 총회니 하면서 애들을 12시가 되도록 안 재운다. 처음엔 신나게 놀던 애들도 하나 둘 지쳐가고 짜증 내고 엎어지는데도 회의다. 회의가 아니라 끝장 토론이다. 쌍방 토론인데도 잘 보니 일방이다. 의도된 대로 결정될 때까지 회의가 계속되는 것 같다. 꼭 누가 이기나 보자는 것 같다. 만장일치, 모두 다 동의해야 할 수 있단다. 그리고 시간은 새벽으로 달려간다. 이게 강하게 키우고 잘 키우는 것인가. 아이를 위한 공간이라면 애들의 최소한의 숙면권을 보장해주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엄마, 아빠들 자기들 놀고 욕심 채우려고, 대리만족하려고 만든 곳 아닌가! 싫다. 다 싫다. 그래, 보내지 말자. 보낼라면 맘대로 해라. 에라, 나는 모르겠다.

....

5년차다.

큰 애는 해바라기, 작은 애는 씩씩한에 다니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생각해보니 중견이다. 그런데 여전히 신입이다. 아니 새로 들어온 아마보다 아는 게 없는, 이래저래 시간만 보낸 머리만 큰 신입이다. 신입보다 터전에 대해서도 더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는, 어중간한 신입이다.

많은 적든, 많은 곱든 몇 년간 터전 생활을 해서인지, 아님 불혹을 넘어서면서 철이 들어서인지 뭔진 몰라도 언젠가부터 마음이 편해졌다. 힘도 크게 쓰이지 않는다. 화도 나지 않는다. 터전과 함께 하지 못하면서도, ‘함께 하지 못해’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 쓰이는 것도 없다. 후배 조합원들을 모르거나 챙기지 못해 느낀 죄책감도 조금밖에 안 든다.

그러니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불편함, 부담감과 책임감, 죄책감을 떨치니 아빠, 엄마들 대하는 게 편하고 좋아졌다. 터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마음 불편하지 않다. 방 모임도 종종 간다. 친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만 몇 해 뒤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방모임이다. 아마들 만나도 크게 쭈뼛하거나 어색하지 않다. 터전에 대해 몰라도 별로 부끄럽지 않다. 얼굴이 두꺼워졌나 해서 만져보고 거울 봐도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포기를 했나?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터전 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애들 얘기가 나오고 학교 얘기가 나오고 학원 얘기가 나오면 입이 빠죽빠죽, 히죽히죽 거리기 시작한다. 사랑하고 싶어서다. 사교육을 하지 않아 ‘가나다’도 모르고 ‘ABC’도 모르지만 별로 불안하지도 않다. 자신들의 애들, 사회전반적인 교육 현실을 얘기하며 충고하고 걱정해주는 그분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안쓰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얘기한다. 내 아이는 이렇게 논다고,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과 함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동생들을 데리고 놀고, 이렇게 저렇게 형·누나·오빠·언니들을 따라 논다고. 달리기 정말 잘한다고, 축구할 때 몸을 날리고 벽에 처박는 정도는 우습다고, 공에 웬만큼 맞아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울지도 않고 계속 야구하자 하는 아이들이라고. 땅바닥은 방바닥이고 옷에 흙먼지 묻지 않은 곳을 찾을 수 없고 승승 구멍 투성이가 될 정도로 화끈하게 놀 줄 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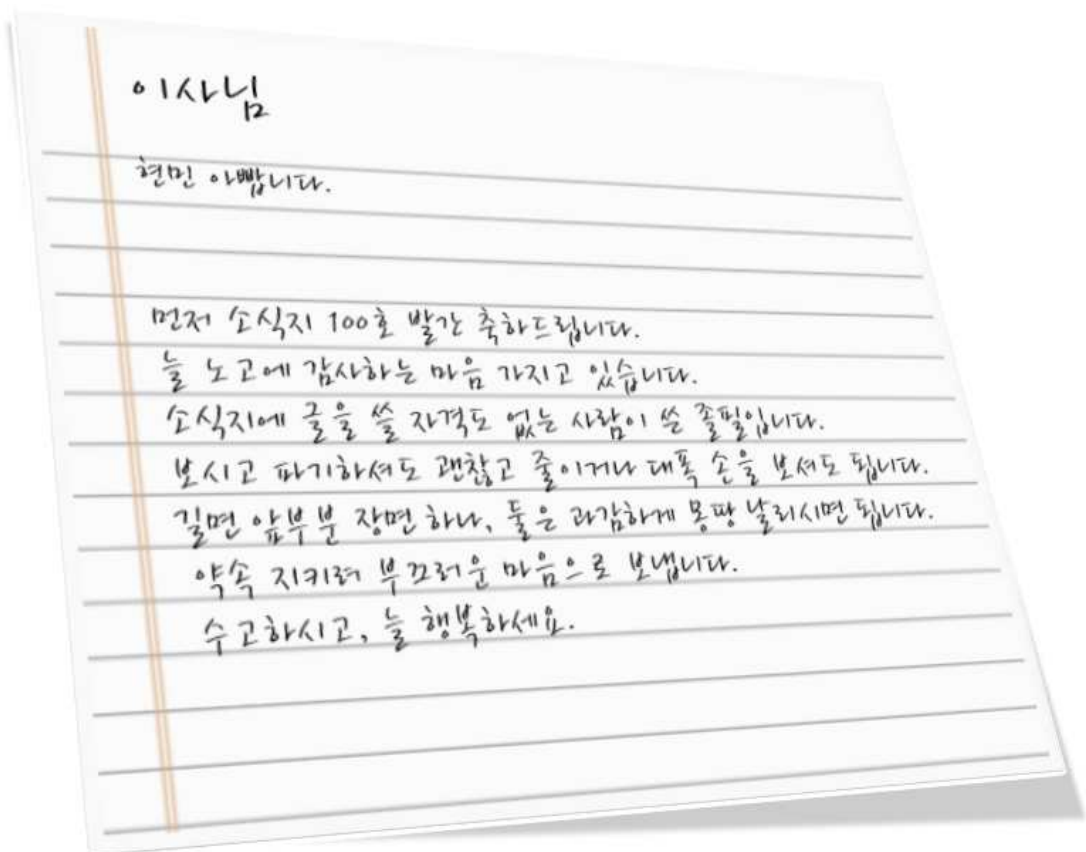
산에 가서 쓰레기 주을 줄 알고, 지렁이 땅속으로 돌려보내 줄 줄 알고 나무, 꽃잎 하나 이름 부르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낙엽 뒤집어쓰고 누워 낙엽 속에 파묻힐 줄 안다고. 온 집을 5분 만에 난장판으로 만들고 치울 줄을 몰라도, 아빠가 물 틀어놓고 세수하면 지구가 아프다고 직접 잠그고, 휴지 두 칸, 세 칸만 떼서 뒤처리할 줄 아는 게 우리 아이들이라고.

혹시 엄마 아빠 다 늦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자신의 아들, 딸처럼 집에 데리고 가 씻기고 밥 먹이고 난리를 치고 놀아도 바라보며 웃어주는 엄마 아빠들 천지라고. 주장과 신념이 좀 강하긴 하지만 큰일 작은 일 마다치 않고, 내 일 네 일 가리지 않고,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는 엄마 아빠들이 모여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마디 덧붙인다.

”내가 우리 터전에서 제일 농띠 아빠“라고.

감사한다.

아이들이 씩씩한, 해바라기에 다니는 게 감사하고 좋고 자랑스럽다. 비록 ‘아웃사이더’ 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곳의 일원이라는 게 좋다. 그렇다고 갑자기 애정이 샘솟듯 솟아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터전 아빠가 돼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만 해도 감사한다. 그렇다. 나도 ‘터전 아빠’다.



공동육아 1년을 보내며



_이정은 해바라기 홍소정, 씩씩한 홍서연 엄마

천신만고 끝에 문턱을 들어서게 된 씩씩한 어린이집.
-소정이 4살 때 낙방한 쓰라린 기억이 ㅠ 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토록 바라던 씩씩한에 우리 소정, 서연이가 등원하던 날,
설레임과 감격의 눈물을 한바탕 쏟기도 전에.....ㅠㅠ
신입조합원 교육, 총회, 통합방모임을 연달아 치루었지요.
자정내지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모임과 아마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들도 평소 자던 시간을 가뿐히 넘기고 노는 모습들.

‘이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설명회 때는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았는데...‘

길핏하면 자정 넘어까지 환하게 불 켜져 있던 해바라기를 보며 베란다 창문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정신없는 아침으로 시작하여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눈물, 콧물, 신물 게워내며
다시 맞이한 봄.

시계바늘의 각도에 따라 쫓기듯 매달리던 내 생활의 규칙도 어느새 많이 무너지고
공동체, 융통성, 흐름, 유대관계 이런 개념들이 생활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 온 변화를 새삼 느끼네요.

정신없이 산 것 같은 1년 동안 내 안에 일어난 변화, 참 신기합니다.

학창시절 조금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관계에 익숙했던 내가
이제는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얼굴들이, 미소들이 반갑고 기쁩니다.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아이들, 저의 남편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시 생활 속에서 이런 인연들이 생긴다는 것이 참 신선하고 새롭네요.

사람뿐 아니라 지나다니며 만나는 나무, 꽃, 길바닥, 곤충들, 쓰레기들, 담벼락, 새들, 심지어 공기와 햇
빛과 바람과 향기도 공동육아를 하면서 새로이 다가온 친구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화두는 “공동육아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따뜻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몸에 좋은 먹거리,
사랑과 관심과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자라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아이들, 나아가 '우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을 수밖에 없는 많은 관계와 연결고리들, 또 사회적 구조와 생태적 환경, 또 기타 등등.

'나' 라는 '점'에서 시작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면' 그리고 '입체' 들이 내 속을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 오리무중 헤매고 있는 것이 많네요.
그러나 자꾸만 더 나아가고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치밀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분간은요. ^^

- 중간 중간 정리도 필요하겠지요.

지금까지가 1년간 씩씩한 어린이집에 발을 담그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홍보이사님의 전화 한 통 덕분에 근 10년 만에 글을 써본 소감은 정말 아직도 배우고 열리고 깨우쳐져야 할 것이 많구나 하는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

추신.
남편이 저랑 이야기하던 중에 종종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전혀 몰랐는데 제가 써놓은 글을 보니 남편의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
그래도 좋은 봄날 우리 웃으면서 재미나게 살아요. ♥



김현준네 소개



월악산(국립공원!!)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현준아빠와 대구 앞산의 정기를 조금 받은 현준엄마가 만나 과함과 부족함의 격렬한 끌림 속에 현준이가 나와 이렇게 터전 식구들 앞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가 부족함이 많기에 모나거나 놓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준이가 점점 어두워지고 가족과 관계단절이 될까봐 다른 곳에 전혀 눈을 안주는 슬픈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부족하면 다른 분들의 힘을 빌려보자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성공인 것 같습니다. ^^* 대박~~



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 **현준아빠(김영록)** : 협동조합 매장인 자연드림 신매점 매니저이며 충청도 촌놈입니다. 학교가려고 경상도에 왔으며 그래도 경상도 밥을 근 20년 묵었니더~ 집안 분란의 원천이며 술을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며 현준이를 추양하며 마누라에게 꼭 잡혀 사는 보편적인 남자입니다.
- **현준엄마(박민경)** : 청각장애특수학교인 영화학교에 3년 째 재직 중(언제 잘릴지 모름)이며 대구 토박이입니다. 경상도 밖에서 사는 것을 꿈꾸지만 경상도를 벗어나지 못해 타지에서 일하던 현 남편을 꼬셔 바깥세상 냄새를 맡고 있으며 술을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편이 노는 것은 싫어하고 자기가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보편적 여자입니다.

- (김)현준이 : 한평생 대구에서 살아온 대구 토박이이며 집에서는 거의 안 울며 밖에서만 우는 전형적인 집빠돌이입니다. 감수성이 충만하여 21세기 새로운 리더타입이고 요즘 대세인 쌍꺼풀이 없는 매력적인 눈빛의 소지자이기도 합니다. 가끔 2,3살 아이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식구가 대구에서 산지 5년째이나 아직 변변한 집도 재산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재테크로 이곳에 들어왔으니 많은 관심과 격려, 술자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김현준 아빠의 일방적인 가족소개였습니다. 감히 홍보소위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마누라에게 오타 이외에 수정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해대는 간 큰 서방입니다. ^^



김동현네 소개



김동현 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해바라기 1학년 김동현 가족입니다. 공동육아의 좋은 기를 받아 행복한 터전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영, 재완, 재형네

- **아빠(박인주)** : 최상의 남편이며 최고의 아빠!!
아직 낮가림을 좀 하는 듯함.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 보임.
- **엄마(김미향, 쾡거루)** : 쿨~한 듯 뒤끝 있는 마누라, 두 얼굴의 엄마 ㅋㅋ
터전에 입성 후 물 만난 뱀처럼 살판났음.
- **공주(박소영) 소영**: 힘들게 땀 흘리며 우리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아빠가 좋아..

아빠: 소영이를 위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터전에 데려다 주고
터전에서 놀아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

소영: 벚꽃!

아빠: -, -;;

- **왕자 (박재완,재형(쌍디))**

재완: 엄마 내일 아침에 데리러와~~

재형:(터전 등원해서 두리번거리다)
엄마 아침은 어디 갔어?



우현준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옥수골을 바라보는 오래된 집에서 알콩 달콩 지지고 볶는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대장아빠 잘 빠치고
그리면서 본인 왈 너무 너무 착하고 잘하고 있다니 그리 믿어야죠. 아빠를 마니마니 기다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최고인 거 맞겠죠?

답은 엄마 소개합니다. 모두 잘하고 싶은데 체력도 능력도 한계를 느끼는 자칭 완벽주의 추구하는 어
설픈 사람입니다

우리집 보물 현준이는 우리부부에게 너무 많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아직한 맘 상하게 하지 않는 동생도
예쁘게 잘 챙기고 애교도 참는 것도 잘해나가는 조금 부끄럼이 있고 내성적이지만 참한 아이입니다

우리집 보배 서현이는 엄마 아빠가 잘 다듬어 보배를 만들어야합니다. 아빠를 그저 허허실실 웃게 하는
애교와 고집, 오빠하고 재밌게 잘 노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아이입니다.

앞으로 씩씩한에서 우리가족들과 마니마니 사랑하며 아끼며 지내보아요



태오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 **아빠: 권정인(32, 초등학교 교사)**

경북 경산에서 현재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술과 사람을 좋아합니다. 공동육아 참여 이후, 저녁 시간을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 **엄마: 이효진(32, 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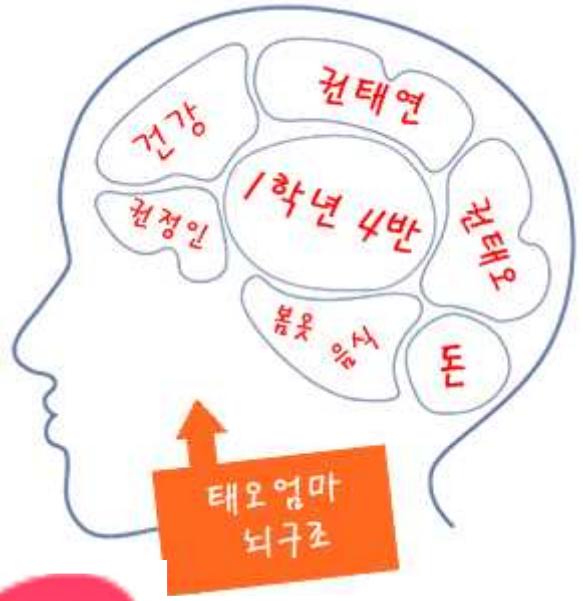
고산초에서 현재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역시 술과 사람을 좋아합니다. 공동육아 참여와 별 상관없이 학교생활에 정신이 없습니다.

● **첫째: 권태오(5)**

4세부터 녹원어린이집을 다니다 씩씩한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공동육아 참여 이후, 잘 놀아서 얼굴이 새까매지고 살이 빠지고 키가 좀 컸습니다. 장난치길 좋아하고 무한도전, 런닝맨을 엄마, 아빠 따라 즐겨보며 유재석 아저씨를 좋아합니다.

● **둘째: 권태연(3)**

지금은 할머니집을 다니고 있으며 내년엔 등원할 예정입니다. 고집이 세긴 하나, 혼자서도 잘 놀고 무얼 해도 예쁜 막내입니다.



| 5월 씩씩한 어린이집 |

_조윤정, 노승복, 이희연, 황태순, 임덕진
(체리, 나비, 머루, 벚꽃, 구름빵)

- ✧ 이 달의 주제 : 푸른 5월
- ✧ 이 달의 세시와 절기 : 입하, 소만
- ✧ 이 달의 노래 : 어린이날 노래, 봄나들이, 오동꽃, 절기노래 3,4절
- ✧ 전래동요 : 산도깨비, 별아별아 꿀떠라, 어깨동무씨동무
- ✧ 전래놀이 : 달팽이, 어깨동무씨동무

✧ 교사회 일정

- 출근시간

07:30	머루
08:30	나비
08:40	달사탕
09:00	체리
09:30	구름방
09:50	벚꽃
14:00	보름달

✧ 행사

- 5일(일) : 어린이날 행사

✧ 전달사항

-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개별면담(5월 첫째주 마무리)

오동꽃

오동꽃 보라색 오동꽃 따가지고 본다.
 나팔같이 생긴 오동꽃 따가지고 본다.
 오동꽃 열매 갈라보면 그 속에 연둣빛 알맹이
 연둣빛 바람이 불면 싱싱한 꽃향기
 오동꽃 보라색 오동꽃 따가지고 본다.
 나팔같이 생긴 오동꽃 따가지고 본다.

봄나들이

튼기풀꽃 따서 목걸이 만들고
 민들레꽃 따서 시계 만들고
 씬바귀꽃 따서 꽃다발 한아름
 우리 아기 봄나들이 꽃밭이었네
 꽃보다 예쁘게 활짝 피었네

산도깨비

달빛어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뿔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예루화 둥둥
 얼씨구 절씨구 어절씨구 좋다
 깜짝놀라 바로보니
 트림없는 산도깨비
 에고야 정말 큰일났네
 두눈을 꼭감고 예루화 둥둥
 얼씨구 절씨구 어절씨구 좋다
 저산 도깨비 날 잡아갈까
 가슴소리는 콩닥콩닥
 걸음아 날 살려라
 꿈지네바지게 도망갔네

어깨동무 지동무

어깨동무 지동무
 보리가 나도록 지동무
 어깨동무 지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어깨동무 지동무
 보리가 나도록 지동무
 어깨동무 지동무
 보리가 나도록 지동무

5월 씩씩한 교육일정

	월	화	수	목	금
1주 방모임주간			1	2	3
			·재활용품으로 만들고 싶은 것 만들기 ·산책	·터전살이 ·안전교육 ·소방훈련	·터전살이
2주 소위모임주간	6	7	8	9	10
	·(입하) ·차모듬 ·각방나들이	·대동놀이 토토로와 함께 ·각방 나들이	·전체 나들이	·연령별모임 ·7세전화통합	·기본생활교육 (7세 성교육 수성구칭) ·옛이야기 ·닫기모듬
3주 이사회주간	13	14	15	16	17
	·차모듬 ·각방 나들이	·대동놀이 ·각방 나들이	·전체 나들이 ·벚꽃생일	·연령별모임	·석가탄신일
4주	20	21	22	23	24
	·차모듬 ·각방 나들이	·(소만) ·대동놀이 ·각방 나들이	·전체나들이	·연령별모임 ·7세전화통합	·요리활동
					25
					·김건우 생일
5주	27	28	29	30	31
	·차모듬 ·각방 나들이	·대동놀이 ·박소영생일	·전체나들이	·연령별모임	·먹거리 교육
메모	※ 수요일 전 나들이 장소는 날씨와 자연물의 변화에 따라 주차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_노승복(씩씩한 나비)

4세 : 김건우, 김도은, 문송주, 박서희, 조민주, 우서현

등원 및 열기

이번달에는 나비의 출근 시간이 늦은 관계로 나비보다 일찍 등원해 있던 송주와 건우가 반갑게 맞아주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2월부터 등원을 잘하던 도은이가 요즘 엄마, 아빠와 헤어지기 아쉬워 몇 번을 포옹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리며 나비에게 안겨 2층으로 올라온다. 그 후로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아 옆 친구들과마저 언짢게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들이 고집부리는 모습을 어디까지 받아주어야 할지 고민이다.

나들이

4월의 산 나들이에는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폭포길 입구에서 애기똥풀을 만나 손톱에 물을 들이기도 하고, 다음에 가도 걸음을 멈추고 물을 계속 들인다. 갈 때마다 더 자라있고, 며칠 전에는 꽃이 핀 모습도 보았다. 아이들과 지내는 첫 봄나들이에서 천을산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박새방에 꽃의 사진과 이름을 사진에 담아 전시해두었다.) 봄꽃 말고도 천을산 주변의 자연을 사진에 담에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점심

지난달과는 다르게 식사를 할 때에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이다. 건우가 꾸준히 앉아 있지 않아서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름만 불러도 씩 웃으며 자리에 앉는다. 서현이가 매우 반찬을 좀 꺼려하지만, 그래도 가장 골고루 잘 먹는다. 고추장으로 준비된 음식은 맵다고 먹지 않으려 하지만 밥이랑, 국을 더 먹을 수 있게 유도 하고 있다. 좋아하는 국이 나오면 말아먹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송주는 말아던 국밥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꼭 그만 먹는다고 해서 실랑이를 하는 중이다. 혼자서 잘 먹던 도은이는 떠먹여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낮잠

또래가 모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건우와 도은이는 같은 자리에 요를 깔아주고, 누구와 잘거라는 말을 아직 하지 않고, 자기 요가 깔린 곳에 가서 잘 눕는다. 2시 정도면 아이들 모두 잠이 들고, 일찍 잠든 서현이와 도은이가 가장 먼저 일어난다.

또래와 관계

점진적으로 또래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송주와 건우, 도은이는 엄마, 아빠, 아기놀이를 한다고 서로 부르면서 다니고, 책상이 침대라면서 도은이가 건우 손을 잡고 “아빠 손잡고 자자, 아가야”하면 건우는 또 “응~”하고 대답하고는 한참을 눈감고 책상위에 누워있다. 소꿉놀이를 한다고 아이들이 모여 있다가 종종 밀고, 꼬집고, 때리는 등 사건이 일어난다. 아직은 양보심이 없어서 서로 요구사항이 생기면 친구에게 피해를 주니, 자연스럽게 울음이 터진다. 한동안은 이런 관계가 지속 될 것 같아서 아이들 옆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도와주려고 한다.

텃밭 활동

감자심기에 이어, 바깥놀이 시간을 활용해서 완두콩과 상추, 고추와 토마토, 가지 등을 심었다. 활동에 참여 했던 아이들은 이후에도 물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싹이 자라는 것을 보고 좋아하기도 했다. 다음에는 봉숭아도 심어서 여름에 손톱에 물들이는 활동도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

5월 방별 활동엔...

- 재활용품으로 장난감 만들기
- 비누 만들기 - 아이들 손에 적당한 크기의 모양을 만들고 싶다.
- 요리활동 - 밀가루 반죽을 한 경험을 토대로 과자를 만들기





_황태순(씩씩한 벚꽃)

7세: 박소영, 송준서, 이하람, 장문경

6세: 신차람, 안승우, 이루다

5세: 권태오, 김영현, 홍서연

번덕스러운 날씨 덕분에인지 아픈 아이들이 유독 많았고 열이 한참 떨어지지 않아 아마와 아이들 모두 몸이 힘들었던 달이었다.

아침의 휴식과 함께 새로운 교사 구름빵과 함께 나들이를 가고 독수리방과 함께 낮잠을 재우고 있다.

교사마다 36명의 아이들과 지내는 진정한^^;; 통합을 하고 있다고나 할까?

낮잠시간이 되면 일층이 복잡복잡하지만 잘 자고, 아침열기와 나들이, 오후살이에 터전은 시끌벅적하다. 두 달 연달아 일찍 출근하고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 아이들 몸상태 못지않게 나의 상태도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워크샵에서의 내 마음 돌아보기(비폭력대화)와 나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힐링이 되어 가고 방향을 찾아 가는 것 같아 소중한 4월을 보낸 것 같다. 승우가 입원을 하여 일주일 넘게 터전을 나오지 못해 걱정이 된다. 건강을 잘 회복해서 다시 신나게 뛰어놀자~.

나들이

진달래 군락지를 찾으러 꿈통옆길로 가고, 봄꽃이 많이 핀 산딸기언덕, 도토리 길을 주로 나들이 나왔다. 무덤가 주변에 핀 할미꽃을 보고 만져보고 느낌도 말해보고 탁자 인형극으로 할미꽃에 관한 옛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날씨가 풀리며 도롱뇽을 놓아줄 때 했던 폭포길 쓰레기 줍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 폭포길에 비닐이 떨어져있거나 비료포대가 있으면 미리 주워 놓고 돌아오는 길에 가져간다.

점심시간

한참 식욕이 떨어졌던(아파서) 차람이가 몸이 회복되면서 밥도 야무지게 먹고 활기차졌다. 루다, 문경이는 두 그릇 이상을 먹는 것은 기본이고 준서와 번갈아가며 주걱차지를 하고 있다. 영현이는 매일 일찍 등원을 하여 피곤했는지 밥 먹다가 두 번 정도 상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어 이부자리를 퍼주기도 했다. 하람, 소영, 태오, 서연이는 같이 앉아서 서로 웃으며 장난하느라 식사시간이 늦기도 하지만 자가 덜은 양은 잘 먹고 있다.

아침열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아이들은 이야기하고 나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여 아이의 말을 확인하는 정도로 개입을 하였다.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고 확인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1. 청명, 곡우에 대한 이야기:

청명한 바람은 (시원해, 좀 쌀쌀해, 따뜻해, 더워).

2. 책상에 그림 그리는 것

밥 먹을 때 책상에 세균들이 애들 몰래 올라 와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

나도 언제 지워봤는데(그린 적이 있음)진짜 어려워.

지우개로 식탁 지우면 세균들이 더 올 수 있어.

식탁에 낙서하지 마시오라고 했으면 좋겠어.

3. 나들이 안전(횡단보도)

선이 없는데서 건널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다녀야 돼. 그렇게 안 가면 우리가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일 수가 있어.

초록불 났을 때도 차가 급하게 모르게 썩 지나가.

손을 들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면서 건너야 해.

4. 곤충이나 식물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엄마랑 아빠랑 니랑 가는데 갑자기 커다란 거인이 나타나서 엄마랑 아빠랑 잡아가면 나는 기분 좋겠나?

5. '아직 쓸 만한 걸' 동화를 듣고 장난감을 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이마트에 가서 가지고 싶은 장난감 사진을 찍어서 집에 와서 다시 쓸 수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서 갖고 놀면 돼.

낮잠시간

내가 책을 읽으면 구름빵이 아이들 토닥토닥 해준다. 딱따구리방에 현준이와 유채도 가끔 내려 와서 잔다. 대부분 일찍 잠드는 편이고 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용한 활동을 하도록 한다.

7세 (몬스비행선)

매주 목요일 마다 긴나들이를 다녀왔다. 어린이회관과 월드컵경기장으로 도시락을 싸가서 여유있게 놀다가 왔다. 두 장소에서 먼저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친구들이 기다려야(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구들이 올 때까지)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분이 어떤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아이들의 마음도 긴 시간 속에서 볼 수 있고 관찰 할 수 있어서 또 조금은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선화통합

몬스비행선 친구들은 표현이 솔직하다. 과감없이 그대로 생각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표현한다. “괴물 같다” “무섭다”하며 우루루 숨고 가까이 가기 싫어했다. 선화 선생님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지 부탁을 드렸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괴물, 무서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막상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얼굴이 동그란데 밑에가 좀 이상해” “눈 위에 점이 있어”라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을 듣고는 다른 친구들이 “니도 점 있잖아” “씩씩한의 누구도 머리가 커서 옷이 잘 안들어 간다”고 말하니 그 뒤로 그 말은 자연스럽게 꺼내지 않았다. 두 번째 만남 역시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하는 아이들의 반응, 태도를 보며 오히려 아이들의 솔직함이 건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5월 방별 활동엔...

- 아이들의 이야기 더 많이 들어주기
- 자연에서의 놀잇감 많이 활용하기
- 압화 하기
- 습식수채화 (비 오는 날)





_이희연(씩씩한 머루)

7세: 김윤아, 김지호, 우현준, 이윤서

6세: 박채희, 오은준, 조승주

5세: 강유채, 김지오, 박재형

봄비가 오네요. 4월 중순까지 활짝 피었던 개나리꽃, 복숭아꽃, 진달래꽃이 지고, 나무마다 연푸른 잎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봄비를 맞으며 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터전의 아이들도 마음과 몸이 생긴 결대로 부드럽게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머루예요. 다시 만나 반갑고 새롭습니다. 참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고, 인연이란 신비롭군요. 아침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동안 그 큰 자리를 다 채울 수 없겠지만, 표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아침 모듬 한 동안 터전에서 아이들 말소리가 거칠게 느껴질 때도 있어 16일 동화책을 읽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미우니 고우니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읽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과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나 어투 등을 이야기할 때, 미운 말을 써서 나중에는 얼굴도 미워졌던 미우니 이야기를 자주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 좋았어요.

활동 24일 요리활동으로 쭈개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19일 먹거리교육 때에도 쭈버무리를 먹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니, 쭈개떡은 떡살, 쿠키커트로 모양을 내어 보니 더 맛있게 느껴졌나 봅니다. 잘 먹었습니다. 떡을 몇 개만 만들어 보고 일어난 아이들도 있었지만 윤아, 유채, 문경이, 규언, 지호는 끝까지 남아 떡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윤아는 떡살을 쓰지 않고, 혼자서 손으로 별모양을 여러 개 만들고 좋아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나들이 주로 도토리길로 나들이를 많이 갔어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자주 가니, 작던 애기똥풀이 키가 커서 꽃을 피우는 모습, 산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고, 푸른 잎이 돋는 모습을 보았지요. 4월 중순까지는 도토리길까지 가서 무덤가의 할미꽃, 솜방망이, 각시붓꽃 등 야생화들을 많이 봤고, 비가 오고 나서는 울챙이, 참개구리 등을 보았어요. 매일 가도 매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아이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점심 나들이 때 재형이와 승우가 옷이 젖어 터전으로 오던 중 돌나물을 캐어서 달사탕께 드린 적

이 있어요. 24일에는 터전 앞 산길에서 ‘달래 구디’를 발견해서 달래를 많이 캐어 달사탕께 드렸습니다. 직접 캔 것을 점심 때 반찬으로 해서 먹으니 아이들도 밥을 더 잘 먹는 듯합니다.

낮잠 낮잠을 잘 때 고민이 많아요.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주로 윤서, 윤아, 은준, 채희, 때때로 지호도 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재우는 기술의 문제인가, 다른 선생님들은 어찌 그리 잘 재우시나 하는 마음에 방법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후활동 오후에는 안에서 놀 때 주로 블록이나 색종이 접기, 동화책 읽기 등을 하고 밖에서는 공차기나 소꿉놀이 등을 많이 하지요. 안에서 있을 때는 색종이 접기를 해달라거나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과 스스로 직접 종이를 접거나,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 생각해 봅니다.

마주 이야기

☞ 4월 3일(수), 아침 9:10분쯤, 2층

하선, 재형, 현준이가 바코드 놀이를 하며 블록을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재형이가 갑자기 머루에게 뽀뽀를 두 번 함. ‘우와’하고 얹은 채로 놀라 누우니, 보고 있던 하선이와

하선 : 머루 기절했다! 그럼, 니 머루랑 결혼해야 한대이~ 머루 아줌마대이~

☞ 4월 4일(목), 6세방 모임에서 방이름을 짓던 중

승우가 ‘개퐁이방’으로 이름을 짓자는 의견을 내어 이유를 물으니 ‘그냥’이라고 하기에,

머루 : 승우야, 집에서 승우를 ‘(궁둥이를 두드리며)아이고, 우리 개퐁아~’하고 부르시나?

승우 : 아니, 우리집에서는 퐁강아지라고 그러는데.

하선이, 상화, 루다 ‘나도 나도’

☞ 4월 8일(월), 2층 딱따구리방, 차모듬 중

머루 : 남자 선생님 오셨잖아. 어떤 게 좋을 것 같애?

윤아 : 신날 것 같아.

소현 : (딱따구리방에 놀러 음) 남자 선생님이랑 여자 선생님이랑 결혼할 것 같애.

머루 : 우하하, 결혼할 것 같애?

소현 : 응, 아침이랑(모두 웃음)

☞ 4월 12일(금), 오전 나들이 길에서

채희 : (애기퐁풀 줄기의 솜털을 만지며) 머루 봐봐.

머루 : 와 부드럽다!

채희 : 부드러워서 못 참겠어!

☞ 4월 23일(화), 1층

현준 : 낚시할래.

머루 : 낚시한다고?

현준 : 나 쉬할래.

☞ 4월 25일(목), 나들이 중

도토리길로 나들이를 갔다가 내려 오던 중, 아래 호숫가의 참개구리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머루 : 개구리들이 왜 저렇게 우는 것 같애?

영현 : (웃으며)나 알아. 짹짹하는 거야(짹짹기를 짹짹이로).

☞ 4월 26일(금), 10:10, 연합운동회 하러 칠곡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건너편 옆자리에 앉아 있던 차람이와 루다, 둘 다 다리를 꼬고 앉아

루다 : 어른들은 이렇게 다리 꼬아. 우리 엄마는 맨날 이렇게 다리 꼬아.

머루 : 왜 그런 것 같애?

루다 : 음, 빼놓아지려고 그런 것 같애.



_임덕진(씩씩한 구름빵)

7세: 최영운, 성도연, 이규언

6세: 송하선, 이상화, 이서영, 이수하

5세: 김소현, 김현준, 박재완

처음 친구들에게 인사를 할 때, 잘 보이려고 어두운 색의 상의를 입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게 크나 큰 실수였는지. 출근하고 친구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주려 할 때, ‘킹콩’, ‘고릴라’,,,, 등등... 우리 친구들이 가지는 첫 인상, 첫 느낌으로 교감을 나눴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대화와 눈 인사를 나누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 아침선생님이 이끄는 수업에 그냥 손가락만 얹어서 함께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가 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여야 할 부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 나의 교육방침과 이 곳의 교육방침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맞추는 중이라 많은 혼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곧 적응하리라 믿습니다.

‘독수리방 돌아보기’ 처음 쓰는 거라서 많은 양해를 추가하여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1. 실내놀이

하루는 친구들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고 원내에서 놀이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그러면 안된다, 무조건 밖에 나가자 하는 상화가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층 책방에서 계단 입구까지 길게 자리를 잡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전체 놀이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술래는

"구름빵! 내가 해야지!!"

언제나 제가 술래!

그렇게 한 몇 게임을 하고 나니 제가 지쳐서... 조금만 쉬자!! 라고 하니 왜 쉬어? 계속해야지? 라며 계속하길 원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의 뒤에 와서 어깨 주무르면서 다가오던 이쁜 도연이!

그렇게 잠깐의 휴식시간이 끝나고 선택한 게임은 구름빵이 개발한 '귀신놀이'

독수리방의 커튼을 다 치면 밖은 환한 낮인데도 꽤 어두움.

어두운 곳에서 술래(구름빵)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친구들을 찾아가는 게임!!

친구들은 귀신이 이불 썼다하면 소리를 짹~! 지르고 도망가면서 배개를 귀신에게 던져요!!

잡으면 제가 간질이죠!!

친구들은 이 게임을 매우 좋아해요.

항상 아침에 오면 "구름빵! 귀신놀이 하러 가자!" "귀신놀이 언제 할거야?" 라며 대화를 먼저 걸으며 하루가 열립니다.

2. 나들이

하루 중 우리 친구들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나들이를 통하여 스스로 자연을 느끼고,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 깊은 시간으로 여기며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여도 아깝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3. 5세

처음부터 5세 방과 함께 해왔습니다. 중간에 교사회에서 5세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원하는 연령이 있는지요? 라며 저의 의사를 물어보더군요. 그래도 저는 처음부터 함께 해 왔던 5세가 그래도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까 하며 5세를 계속 맡아서 하였습니다.

유채와 영현이..

참... 좋습니다.

영현이는 저의 첫 나들이 날,

강아지 퐁퐁을 나의 손톱에 올려 물들이게 해 준다면 집중하는 모습!

그 찰나의 순간을 제 휴대폰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계속 사진 보면서 첫날엔 영현이가 그렇게 다가와줬었지. 그랬었지 라며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책 읽어주며 나 혼자서 낮잠시간을 책임지던 날!

제가 책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이 이미 꿈나라로 들어갔더군요.

4. 경찰과 도둑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한 놀이, 경찰과 도둑.

항상 하고 있을 때면 엄마가 불러서 거기서 나만 빠져도 게임은 계속 되고, 나는 밥 빨리 먹고 또 게임하러 뛰쳐 나왔던...

어렸을 때 기억이 정말 많은 놀이였죠..

처음에 경찰과 도둑하자고 친구들에게 제안 했을 때, 잘 안하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친구들 몇 명을 꼬셔서 내가 경찰 할테니깐 너가 도둑해! 이런식으로 경찰과 도둑할 친구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렇게 제가 경찰을 2번? 정도 하니깐, 친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는데... 다 도둑만 하려고 했어요.

경찰과 도둑 게임을 하면서 중간중간 문제가 있으면, 잠깐만 타임! 이라고 외치고 친구들을 모은 뒤 게임 법칙을 함께 만들면서 게임을 하였습니다. 물론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같이 게임 못한다고 그러니 받아들이고 게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빵 소개

_임덕진(씩씩한 구름빵)



4월 8일 자로 인사를 드리게 된 구름빵! 임덕진 이라고 합니다.

4월 21일 신입조합원 교육이 있던 해바라기에서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하자면 1986년생 범띠입니다.

2008년도에 아동복지과를 졸업하고 취업이 잘 되지 않아 학원, 유치원 등 알바를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직장이 생겼습니다.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장애전담 녹원어린이집에서 첫 근무 하였습니다. 첫 직장이라 그런지.. 많이 몰랐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9개월 정도 있으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탈모치료를 받고 있어서, 나아질꺼라 믿고 있습니다.

첫 직장을 나오고 계속 어린이집만 전전공공하며 도전을 계속 하였습니다. 물론... 오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무하면서 여러모로 상처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김해... 울산광역시.. 에서도 어린이집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생각하기를

보육교사 일을 하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직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썩썩한 친구들과 함께 크고 썩썩하게 잘 성장하고 싶습니다.

요리활동 돌아보기

_서은숙 씩씩한 달사탕



4월은 쑥, 머위, 미나리, 진달래, 돌, 두릅, 고사리, 취나물 등의 들나물, 산나물 철이다.

제철의 나물들을 먹어보게 하기위해서 식단에 넣어보지만 생협에서 물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운 적이 많다.

저번 달 소식지 마감 날보다 늦게 이루어진 달래전 요리활동은 마늘같이 생긴 달래의 생긴 모습이야기와 생달래를 먹어보게 하여 매운맛을 느껴보게 하고 달래를 전으로 구워 맛보게 하여 맛의 변화를 느껴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줌전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고소한 달래전으로 우리 씩씩이들의 입을 기쁘게 만들었다. 음식의 요리방법에 따라 다른 맛으로의 변화를 알려주었다.

원래 진달래화전은 중순쯤 할 계획이었는데 나들이를 다녀오신 선생님들이 진달래가 만개했다고 알려주셔서 2일 아이들이 나들이길에 따른 진달래와 아침이 부조해주신 진달래로 점심과 낮잠시간사이 달사탕이 반죽을 하고 아이들이 모여앉아 모양을 빚어 진달래꽃을 예쁘게 올려놓았다.

진달래화전의 예쁜 모습에 더 많이 만들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낮잠을 자고 그동안 달사탕이 화전을 구웠다. 아이들이 만든 것을 구우니 꽃이 미워졌다. 그래서 구우면서 진달래꽃을 다시 붙여서 진달래화전을 더 예뻐보이게 하였다.

조금의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자고 일어나서 예쁘게 구워진 화전을 보고 예쁘다는 감탄사를 내뱉는 씩씩이들을 보면 흐뭇하다. 진달래화전에 시럽으로 오미자액을 뿌려내놓았더니 예쁜 모습뿐만 아니라 오미자의 새콤달콤한 맛이 좋았다. 더 많이 먹지 못해서 아쉬워했다.

우서현이는 엄마에게 오미자 뿌려진 진달래화전을 오미자액 색때문에 '수박떡' 먹었다고 이야기했다. 얼마나 귀여운지,,, 자료를 찾다가보니 진달래화채를 만들 때 꽃잎을 뜨거운 물에 데치면 물이 진분홍빛이 아닌 초록색으로 바뀐다고 한다. 아마도 엽록소가 빠져서 그런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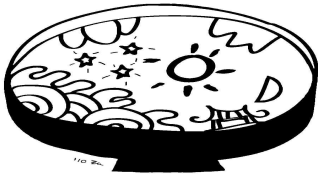
내년에는 진달래화전과 함께 진달래화채도 친구들과 해봐야겠다. 진달래로 아침이 친구들과 달래를 섞어 진달래주먹밥을 만들었다. 밥을 동그랗게 뭉쳐 진달래를 얹으니 모양뿐만 아니라 맛도 좋았다.

4월은 역시 쑥의 계절이라 주방 옆으로 난 창으로 달사탕, 달사탕부르며 직접 뜬은 쑥을 건내준다. 우리 친구들은 쑥으로 콩가루를 푼 쑥국도 먹고, 먹거리활동으로 머루와 함께 6세들이 직접 방앗간에서 빵아온 쌀가루에 쑥을 버무려 찌서 쑥 버무리도 만들어 먹고, 요리활동으로 쑥개떡을 만들었다.

쑥이야기는 쑥버무리 만들면서 해서 쌀을 뿜아서 쌀가루가 되며 쌀가루에 쑥을 섞어서 반죽했을 때 쌀가루의 색 변화도 관찰하였다. 쌀과 쑥을 같이 빵지 않고 쑥을 다져서 아이들과 함께 쌀가루에 쑥을 섞어보니 하얀쌀가루가 연초록색 반죽이 되었다. 색이 너무 예뻐다.

쌀가루는 뜨거운 물로 반죽하는 익반죽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반죽을 동글납작하게 빚어 떡살로 모양도 찍어 쑥개떡을 만들었다. 쑥개떡의 모습이 너무 근사했다. 찜솥에 찌서 참기름을 묻혀 주었더니 너무 맛있게 먹었다. 조금의 쑥개떡을 챙겨 아이들이 은혜교회에도 나누어 드렸다.

요즘은 오후 바깥놀이 시간에 달래를 캐서 가지고 오는데 그 양이 상당하다. 그래서 오늘은 닭살볶음에 그 달래도 넣어서 요리했다. 산과 들을 다니며 자연의 변화도 느끼고 자신들이 직접 따온 진달래꽃으로, 쑥으로, 달래로 맛난 음식도 만들어 먹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씩씩한 맛있는 5월 식단

_서은숙 씩씩한 달사탕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	6	7	8	9	10
오전 간식	토마토		딸기		미숫가루		토마토			
점심			김치볶음밥 맑은콩나물국		열무된장국 동태전 오이무침		김치콩나물국 연근강정 미역줄기볶음			
오후 간식			편감자 우유		단호박롤빵		조랭이떡국			
	6	7	8	9	10					
오전 간식	요플레		사과		시금치죽		참다래		씨리얼우유	
점심	참치김치찌개 부지깻이나물 땅콩조림		쪽국 도토리묵무침 파프리카멸치볶음		카레밥 계란파국		황태국 두부조림 고사리나물볶음		버섯국 감자볶음 머위나물	
오후 간식	해물부추전		궁중떡볶이		만두국		신김치주먹밥		새알미역국	
	13	14	15	16	17					
오전 간식	유과		연두부		방울토마토		수제검은콩두유			
점심	시금치된장국 메추리알장조림 콩나물무침		어묵국 오징어두릅초장 취나물무침		잡채덮밥 들깨무국		콩비지찌개 미나리강희 달갈집		석가탄신일	
오후 간식	편고구마,우유		김치스파게티		숙인절미		감자호박수제비			
	20	21	22	23	24					
오전 간식	삶은계란		딸기		오이당근스틱		야채죽		참외	
점심	두부호박된장찌개 달걀말이 부추겉절이		냉이된장국 우엉조림 마늘종새우볶음		죽순볶음밥 홍합무국		근대국 돼지고기깻잎전 시금치무침		홍합미역국 돈가스 야채샐러드	
오후 간식	알감자구이		김치전		고구마경단,우유		멸치주먹밥		김건우생일터	
	27	28	29	30	31					
오전 간식	요플레		사과		참다래		고구마스프		토마토	
점심	해물짬뽕 팽이버섯전 양배추쌈		황태미역국 돼지갈비찜 상추겉절이		자장밥 팽이버섯된장국		사골곰국 깍두기 애호박전		순대국 무생채 진미무침	
오후 간식	참쌀부꾸미		박소영생일터		수제미니햄버거		떡꼬지,우유		아카시아 야채튀김(요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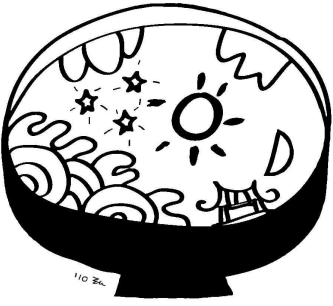
*식품원산지 - 쌀, 잡곡류, 쇠고기(한우), 돼지고기=국산 김치(직접담금)-배추, 고춧가루=국산 생선=국내산
*식품구매 및 터전사정에 따라 식단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5월 해바라기 방과후 |

—김병현, 류선희, 임효정
(토토로, 포도, 루비)

✧ 이 달의 계획

월	화	수	목	금
		1 • 방과후 공원	2 • 개인활동 • 달리기와 계주연습	3 • 고산초운동회
6 • 딱지 만들기와 대회	7 • 천을산	8 • 긴 나들이	9 • 개인 활동	10 • 놀이판 만들기
13 • 풍물 연습 • 표현 활동	14 • 놀이판 만들기	15 • 긴 나들이 • 대구박물관 • 내셔널지오그 래픽 전시회	16 • 개인 활동	17 • 석가탄신일
20 • 풍물 연습 • 표현 활동	21 • 천을산	22 • 긴 나들이	23 • 개인 활동	24 • 딱지 대회와 • 땅따먹기대회
27 • 해바라기대회	28 • 천을산	29 • 긴 나들이	30 • 개인 활동	31 • 놀이판에서 놀기



해바라기 맛있는 5월 식단

_강유정 해바라기 달고나

월	화	수	목	금	
		1	2	3	
간식		취나물주먹밥	케이준샐러드	만두국	
6	7	8	9	10	
간식	찐감자.매실차	한서준생일턱	김밥	야채스프.빵	어묵탕
13	14	15	16	17	
간식	호박.연근전	권오빈생일턱	또띠아롤	딸기요플레	조랭이떡국
20	21	22	23	24	
간식	구운달걀 쥬스	궁중떡볶이	샌드위치	호박죽	라면
27	28	29	30	31	
간식	찐고구마 오미자차	떡볶이	닭죽	핫케익 우유	잡채

* 식품원산지 - 쌀. 잡곡류. 쇠고기(한우).돼지고기=국산/김치(직접담금)-배추.고추가루=국산/ 생선=국내산

* 식품구매 및 터전사정에 따라 식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해**



4월 해바라기 교육평가

4월은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한 아이들이 터전을 재미있게 이용하며 보낸 달이다. 다만 날씨가 들쭉날쭉해서 계획된 활동들이 원활이 진행되진 못했다.

마당에서 일학년 아이들이 나무판자를 바닥에 깔고 기지 놀이를 하며 잘 놓았다. 다만 이후 발생하는 쓰레기들과 나뭇조각이 많이 흩어져 바닥을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졸업하고 떠난 큰아이들이 종종 방과후에 들러 놀았다. 특히 김희연은 무척 자주 왔고 소정이라도 간간히 들러 인사를 하고 갔다. 여자아이들은 언니들이 와서 같이 놀 때 반가워했다. 방안에서 하는 놀이들이 풍성해지기도 했고, 문영이와 채환이는 동생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남자아이들은 몸으로 노는 아이들, 말로 노는 아이들, 무언가를 만지며 노는 아이들로 저마다 편한 방식으로 놀았다. 가끔 준탁, 형석, 준명, 준승이가 와서 동생들과 땀 흘리며 놀아주기도 하는데 몸으로 노는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다.

천을산 나들이

그냥 가는 천을산 보다는 루페를 사용해 주변을 들여다보기를 하며 가보았다. 아직은 루페로 살펴보기가 그리 흥미 있어 하지 않아 많은 아이들의 호응은 없었지만 몇몇은 관심을 나타내며 풀과 나뭇잎, 곤충을 살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관찰을 하도록 하고 이후 방별 소모임이나 작은 모둠을 만들어 서로 본 것을 이야기 하고 듣는 활동들을 하면 좀 더 활발한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꽃 키우기

연호 화훼 단지에 지하철을 타고 꽃을 사러 다녀왔다. 아이들은 삼 천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꽃을 골랐다. 키우는 방법과 이름 등을 알아오고 꽃집 주인아저씨의 설명도 잘 들었다. 나중에 주인아저씨께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주셨다. 돌아와서 화분에 꽃을 팻말도 만들고 목요일에서 화분에 옮겨심기도 직접 했다.

썩 뜯기와 화전 만들기

썩을 뜯고 다듬어서 방앗간에 보내고 썩떡 만든 것에 콩고물을 묻히고 자르기까지의 일련에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뜯은 썩으로 떡을 해먹는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했다. 남은 썩떡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봄철 한 번 더 썩떡을 먹을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화전 만들기는 미리 진달래꽃을 따서 모았다. 이후 찹쌀 익반죽을 하고 아이들 개개인이 직접 만들어 후라이 팬에 굽기까지 마쳤다. 오후 간식에 진달래 화전을 포함해서 모두 맛있게 먹었다.

찰흙 만들기와 굽기

두 번의 찰흙 만들기를 하고 한 번의 굽기 과정을 거쳤는데 아이들의 진지한 면과 기발함을 함께 엿볼 수 있었다. 굽기 과정 중에 여러 상황을 두고 구웠는데 직화일 때 구운 찰흙은 모두 깨져나갔고 결국 난로 아래에서 굽던 찰흙들이 살아남아 그나마 도자기의 소리를 내주었다. 나중에 채색을 하고 바니쉬를 발라 그럴듯한 찰흙 작품이 완성되었다.

자전거 타기는 날씨가 좋지 않아 타지 못했다.

5월 중에 다시 한 번 방벌 자전거 타기를 계획하기로 했다.

대구 미술관 관람에서는 셔틀버스가 25인승인데 우리아이들이 나누어 타야하는 상황도 있었고 미리 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또 나누어 타야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단체로 한꺼번에 가는 일이 쉽지 않아 다음에 따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았다.

대공원역까지 걷고 가는 것에 아이들이 불만이 있었지만 그 정도 걷기는 일상이라 생각보다는 잘 걸었다.

5월에는 교사들이 놀이를 제시해서 아이들의 놀이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고무줄놀이나 공기놀이가 아이들의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종종 공동체 놀이도 가질 생각이다. 깡통 차기나 학교놀이 같은 것은 남자 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계속 할 생각이다.

5월에는 네모난 딱지 만들기과 따 먹기를 해볼 생각이다.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딱지 보유 현황을 조절하고 토너먼트를 통해 진정한 딱지의 왕을 가려 볼 생각이다.

대형 놀이판 제작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구상하고 만드는 일을 해 볼 생각이다. 큰 장판에 직접 테이프와 유성매직으로 자신들이 직접 올라서서 놀이를 하는 놀이판을 몇 개 만들어 아이들 놀이에 이용할 생각이다. 더불어 장판을 이용해 땅따먹기 판도 함께 제작할 생각이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표현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창작 욕구도 함께 자극해 볼 생각이다.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줄넘기와 훌라후프를 아이들에게 자주 시키고 있다. 특히 줄넘기는 일학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2학년 아이들에게도 자기 기록 향상이라는 명분을 주고 열심히 독려하고 있다.

해바라기 긴나들이 이야기

_임효정 해바라기 루비

3월에 비해 4월 달에는 조금 더 멀리 나들이를 다녔다.

거리가 멀다 보니 지하철을 이용의 기회도 많아 졌다. 지하철 안 아이들은 휴대폰만 바라보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활기차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였다. 자유분방하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례를 지키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 가며 주워진 자유를 만끽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이러한 모습은 연호화훼단지에서도 발휘되어 꽃가게 사장님도 아이들을 칭찬해 주셨다.

영대 긴 나들이에서는 2학년 이상 아이들의 역할이 아주 잘 수행되어 1학년 동생들이 민속촌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다. 2학년 이상의 언니들이 1학년 동생 두 명을 챙기게 되어 힘들어 하였지만 끝까지 자신이 맡은 동생을 챙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과반수의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힘들어 하였지만 민속촌에 도착하여 그네를 탈 때는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잊고 모두들 즐거워하며 행복한 웃음을 마구 발산하였다.

월드컵경기장 나들이 길은 그동안의 단순한 길과 달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길을 택하였다. 터널 길과 넓은 호수가 보이는 길, 아슬아슬한 외다리 길과 줄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 가파른 길, 또는 작은 구멍을 지나가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길이었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의 시선을 떨 수 없어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이 다양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갔던 4월 긴 나들이는 아이들을 향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Q1. 나는 소식지 중 _____ 코너를 제일 먼저 본다.

Q2. 나는 소식지를 꼼꼼히 다 본다. 오타를 발견할 만큼. (예 / 아니오)

Q3. 나는 방모임에서 소식지를 보느라 쌤 얘기를 놓친 적이 있다. (예 / 아니오)

Q4. 나는 우리 아이 위주로 소식지를 읽고 나머지는 주로 패스~한다. 솔직히~ (예 / 아니오)

Q5. 나는 방모임 후에는 소식지를 거의 들춰보지 않는다. 솔직하게~딱~ 깨서 (예 / 아니오)

Q6. 여태 가장 기억에 남는 글과 글쓴이는 ○○○이다. (※ 베스트 작가상 드려요~)

-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_____이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글쓴이는 _____이다.

Q7. 나는 소식지 분량이 많다고 생각한다. (예 / 아니오)

Q8. 소식지에서 빼도 될 것 같은 코너와 그 이유는?

- 소식지에서 빼도 될 코너는 _____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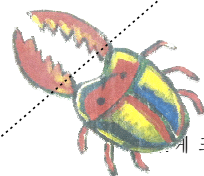
- 그 이유는 _____이다.

Q9. 나에게 소식지란 _____이다.

※ 점선대로 잘라서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 추천하여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그 외 씩씩한 의견을 주신 분께도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번

축!! 당첨



MEMO

소식지 혹은
아무 얘기나...

특집 100호 편지를 마감하며...

•• 짱구(하람부)

100호를 맞이하여 과연 우리에게 소식지란(?)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우리조합식구 모두가 다시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식지에 관한 앙케이트협조를 당부드리며 많은 조합식구들의 따뜻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짐에 또 감사합니다 :)

•• 토닥토닥(루다모)

이번 5월호, 정말 많은 분들이 글과 마음 내어주셔서 귀하게 실었습니다.

이래서 때론 형식도 중요한가봅니다. 100호야! 고맙다~

•• 꽃사슴(현준이맘)

그저 함께 할 수 있는 영광! 넘 행복해요, ^^ 그 행복을 나눠드릴게요.



•• 무궁화(강유채모)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100호를 편집하겠다!(세일러문 버전)

제가 아니고 달빛이...

힘내요 달빛~

•• 달빛(서준모)

100은 흔히 완성, 최고를 의미한다죠. 우리가 걸어 온 발자취와 노력을 다 담아내진 못했지만 101호가 기다리 듯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명랑홍보소위 포텐 터트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 



월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100호

발행일 2013년 5월 1일
발행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발행인 정범철
편집위원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홍보소위
전화 053) 791-6879
주소 (우)706-2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4-6
홈페이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⑤ 전 홍보이사의 희생과
게슴츠레MAN



② 거미부인의 양말



100회 특집 최고 리얼버라이어티쇼

지못미
페스티벌

④ 피카피카~ 피카츄



① S라인과 Sunny



③ 껌 좀 씹던 언니들~
경북여고 3인방!



李



1·9·9·4
경북여자고등학교